Weekly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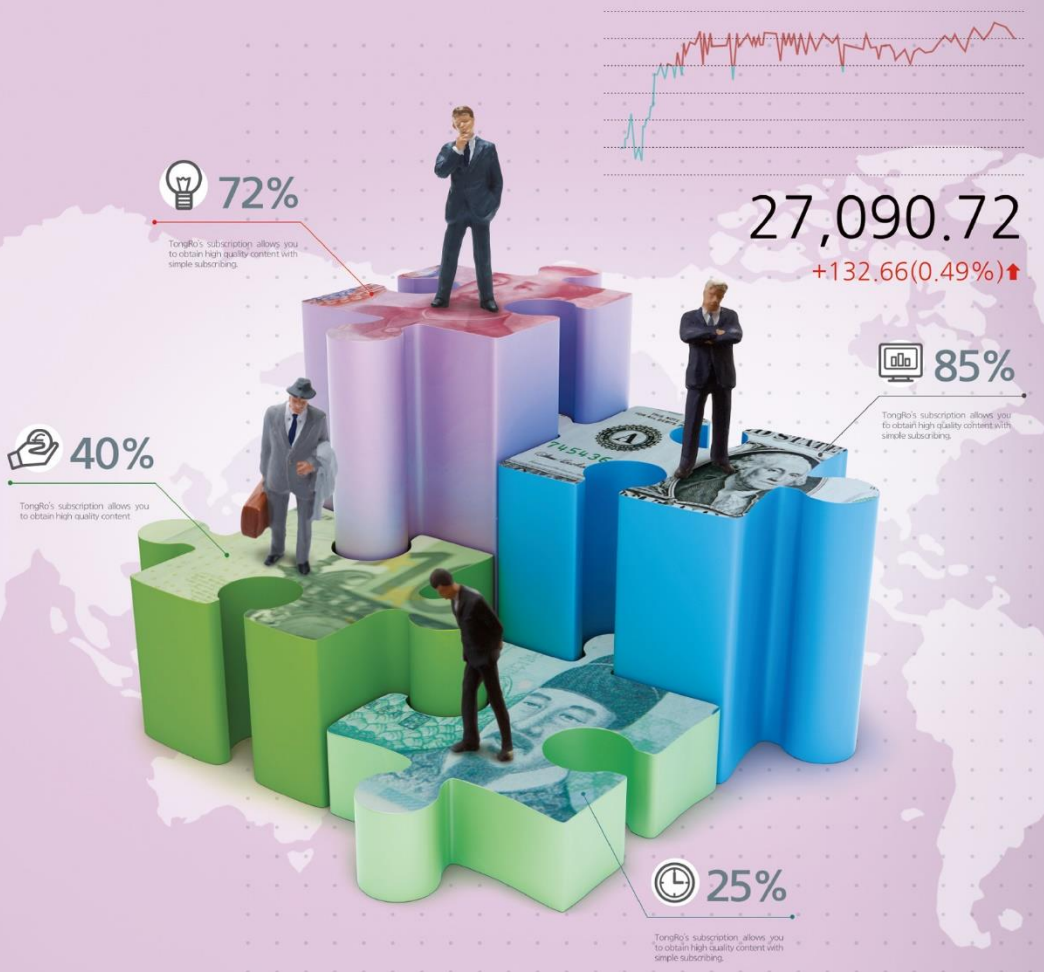
vol. 315 2025. 12. 09

Fed Watcher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글로벌 금융 시스템 개선

Part I Funds Watcher

Part II Fed/Issue Watcher How Stablecoins Can Improve Payments and Global Finance



LS증권

Money & Policy Tracker

노르웨이 국부펀드, 세계 최대 자산 보유 기관 달성 (2025.12.04) 4P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운용자산 1.7조 달러를 기록하며, 일본 GPIF을 제치고 세계 최대 자산 보유 기관으로 부상. 한편, 글로벌 상위 100대 자산 보유 기관의 운용 자산에서 국부펀드는 전년 대비 16.7% 급성장하며 영향력을 확대. 연기금은 성장 둔화로 인해 전체 자산 비중이 사상 처음 50% 미만으로 축소됨

아부다비 국부펀드, 사모 신용 익스포저 확대 (2025.12.04) 5P

아부다비의 국부펀드 무바달라는 시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모 신용 자산군의 견조함을 확신. 성과는 경기 침체 여부가 아닌 철저한 다각화와 리스크 관리 역량에 달려 있다고 일축함. 글로벌 PE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익스포저를 200억 달러까지 확대하는 등 해당 섹터 투자를 공격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영국 연기금, AI 버블 우려로 미국 주식 비중 축소 (2025.12.02) 6P

영국 연기금들은 미국 증시 내 소수 빅테크 종목에 대한 쏠림 현상 심화와 AI 섹터의 버블 붕괴 우려로 인해 미국 주식 익스포저를 축소하고 있음. 주요 연기금은 자산 배분 지역을 다변화하거나 헤지 전략을 도입하며 리스크 관리에 나섬. 한편 일부 운용역은 여전히 빅테크의 이익 성장세와 상승 기회 소외(FOMO)를 우려해 비중 유지를 선호하지만, 다수의 기관은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집중하는 추세

호주 연기금, 주요 인사를 통해 글로벌 투자 리더십 강화 (2025.12.03) 8P

호주 최대 연기금 오스트레일리안슈퍼는 런던 사무소에 해외주식 및 리스크 관리 부문 핵심 인력을 영입하며 글로벌 투자 조직을 강화. 이번 인사는 전체 자산의 과반인 해외 투자 비중 확대에 맞춰 자체 액티브 운용 역량을 내재화하기 위함. 펀드는 유럽 및 북미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히고 장기적인 운용 성과 제고를 도모할 계획

IMF BLOG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글로벌 금융 시스템 개선 (2025.12.04) 10P

스테이블코인은 주류 금융시장과의 높은 상호연계성을 바탕으로 가파르게 성장. 블록체인 기반 단일 원장을 통해 기존 환거래 은행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국경간 결제 비용 절감 및 금융 포용성 확대를 견인. 그러나 기초자산 신뢰 하락 시 대량 인출 위험과 함께, 신흥국 내 통화 대체 및 자본 흐름 관리 조치 무력화 등 거시경제적 리스크를 수반. 국가별 규제에 따른 차익 거래와 데이터 사각지대에서는 금융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어 포괄적인 글로벌 규제 공조가 필수적. 향후 글로벌 금융 시장의 토큰화 흐름 속 시중 은행의 시장 진입이 예상되며, 기존 인프라 개선과 신기술 도입 간의 균형 잡힌 정책적 접근이 요구됨

FT FINANCIAL TIMES

휴머노이드 로봇 레이스의 주도권을 쥔 중국 (2025.12.04) 13P

IREX 2025를 통해 차세대 성장 동력인 휴머노이드 분야의 패권과 밸류체인은 이미 중국이 장악했음을 확인. AI의 발전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는 가운데, 글로벌 IB들은 2026년 시장 변곡점 도래와 2050년 5조 달러 규모의 시장 형성을 전망. 유니트리 등 중국 기업들의 기술 선점과 테슬라 옵티머스의 높은 중국 부품 의존도가 중국의 제조 지배력 확대를 시사. 한편 노동력 부족을 겪는 일본이 대규모 도입의 시험대가 되겠으나, 급격한 노동 대체에 따른 '로봇 공포증'과 정치적 갈등이 향후 주요 리스크로 부상할 전망

Part I

Funds Watcher

글로벌 집행기관 동향

최근 업데이트 된 글로벌 집행기관들(국부펀드, 연기금, 대학기금 등)의
최신 동향을 요약, 정리 했습니다.

국부펀드 (Sovereign Fund)

- ✓ 노르웨이 국부펀드, 세계 최대 자산 보유 기관 달성
- ✓ 아부다비 국부펀드, 사모 신용 익스포저 확대

연기금 (Pension Fund)

- ✓ 영국 연기금, AI 버블 우려로 미국 주식 비중 축소
- ✓ 호주 연기금, 주요 인사를 통해 글로벌 투자 리더십 강화

Funds Watcher

노르웨이 국부펀드, 세계 최대 자산 보유 기관 달성 – 2025.12.04, WTW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운용자산(AUM) 1.7 조 달러를 달성하며 기존의 장기 선두 주자를 제치고 글로벌 상위 100 대 자산 보유 기관 중 새로운 1 위로 부상했다.

기존에 1 위 지위를 공고히 했던 일본 공적연금(GPIF)은 1.6 조 달러를 운용하며 2 위를 기록했다. 글로벌 상위 100 대 자산 보유 기관('AO100')의 총 운용자산은 29.3 조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2023 년부터 이어진 상승세를 유지하여 2024 년에는 11.3% 증가했다.

대규모 자산 보유 기관 중 연기금은 2024 년 전년 동기 대비 6.5% 성장에 그치며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 이는 2017 년 이후 비중이 11.8% 축소되는 등 AO100 내에서 연기금의 장기적인 비중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연기금은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총 운용자산의 절반 미만(49%)을 운용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큰 기관 투자자 그룹 지위를 유지했다.

반면, 국부펀드는 전년 대비 16.7% 증가하며 가장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고, 현재 총 자산의 40.8%를 차지하고 있다. 국부펀드는 모든 지역에서 입지를 강화했으며, 특히 전체 자산의 73%를 차지하는 EMEA(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한편, 연기금은 북미 지역에서 70%, APAC(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52%를 점유하며 여전히 지배적인 우위를 유지했다. OCIO(외부위탁운용관리) 및 Master Trusts 는 북미 지역에서 더 높은 비중을 보이며 해당 지역 전체 자산의 29%를 차지했다.

국부펀드의 평균 자산 규모는 현재 5,430 억 달러로, 전체 평균인 2,930 억 달러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 Norway's SWF topples Japan to become world's largest asset owner 〉
https://www.wtwco.com/en-sg/news/2025/12/norways-swf-topples-japan-to-become-worlds-largest-asset-owner

아부다비 국부펀드, 사모 신용 익스포저 확대 – 2025.12.04, Private Equity Insights

블룸버그에 따르면, 아부다비의 3 대 주요 국부펀드 중 하나인 무바달라(Mubadala Investment Co.)는 200 억 달러 규모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아폴로, 칼라일, KKR 등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후 사모 신용 부문에 대한 확신을 재차 강조했다. 무바달라 측은 최근 대출 시장에서의 일부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산군은 여전히 견조하다고 밝혔다.

아부다비 밀켄 컨퍼런스에서 왈리드 알 모카라브 알 무하이리(Waleed Al Mokarrab Al Muhairi) 그룹 부 최고경영자(Deputy Group CEO)는 구조적 취약성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투자 성과가 해당 섹터의 침체 국면 진입 여부가 아닌,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엄격한 리스크 구조화에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

그의 발언은 서브프라임 오토 론(자동차 대출) 업체인 트라이컬러 홀딩스와 관련해 1.7 억 달러의 손실을 입은 JP 모건 체이스 등 여러 대출 기관의 손실 발생 이후에 나왔다. 당시 제이미 다이먼은 신용 포트폴리오 내에 더 많은 잠재적 부실 요인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무바달라 측은 사모 신용이 지난 3 년 동안 가장 우수한 성과를 기록한 자산군이었다고 밝혔다. 알 무하이리 부 CEO 는 수익률의 사이클적 특성을 언급하면서도, 시장 붕괴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첨언했다.

무바달라는 스폰서 및 기업들이 대체 자금 조달처를 모색함에 따라, 세계 최대 규모의 사모펀드 운용사들과 합작 투자를 통해 해당 부문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다.

〈 Mubadala doubles down on private credit after $20bn surge in sector exposure 〉
https://pe-insights.com/mubadala-doubles-down-on-private-credit-after-20bn-surge-in-sector-exposure/

영국 연기금, AI 버블 우려로 미국 주식 비중 축소 – 2025.12.02, FT

영국 연기금들은 시장의 소수 기술주에 대한 쏠림 현상과 AI 섹터에 대한 버블을 우려하며 미국 주식에 대한 익스포저을 축소하고 있다.

2,000 억 파운드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연기금들은 파이낸셜타임스를 통해 최근 몇 달간 자산 배분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주가 하락 가능성에 대비한 방어책을 추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술주 비중이 높은 나스닥이 올해 들어 20% 이상 급등하고, 2023 년 초 이후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며 두 배 이상 상승한 가운데 나타났다.

피닉스 그룹 산하 스탠다드 라이프의 투자 제안 부문 총괄 칼럼 스튜어트는 관세 조치나 대형 기술주 쏠림 현상 등 미국 주식과 관련된 특정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200 만 명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360 억 파운드 규모의 '지속가능 멀티에셋 펀드'를 운용 중이며, 주식 자산의 약 60%가 북미 지역에 투자되어 있다. 스튜어트는 해당 펀드가 미국 주식 비중을 축소하는 과정에 있으며, 대신 영국 및 아시아 시장에 대한 익스포저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의 확정기여형(DC) 연금 부문은 주로 고용주의 지원을 받아 근로자가 개인 은퇴 자금을 적립하는 형태로, 잠재적인 증시 변동성에 특히 민감하다. 이는 젊은 가입자들이 매그니피센트 7 이 지배하는 미국 지수에 집중 투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은퇴까지 30 년 남은 가입자들은 통상 자산의 70~80%, 심지어 100%를 글로벌 주식에 투자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식 배분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

투자 자문사 XPS 의 수석 컨설턴트 닐 메인스는 역사적으로나 타 섹터 대비 높은 밸류에이션과 결합된 미국 기술주 쏠림 현상은 가입자들에게 초래할 리스크에 대해 더욱 면밀한 주의를 요하게 만들고 있다고 언급했다.

239 억 파운드 규모의 퓨처와이즈 펀드를 운용하는 피델리티는 미국 주식 익스포저를 줄이지는 않았으나, 은퇴가 가까운 가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주식 내에서 더 안정적인 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이동하는 한편, 리스크 헤지를 위해 금을 편입하고 채권 듀레이션을 축소했다고 밝혔다.

580 억 파운드 규모의 정부 지원 직장 연금 네스트는 약 170 억 파운드의 미국 주식 익스포저를 보유하고 있다. 네스트의 투자 부문 CEO 마크 포셋은 기존 미국 주식을 매도하기보다는 신규 연금 납입금을 사모 시장으로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빅테크 종목에서 벗어나 분산 투자를 하고 있다며, 이번 기술주 붐이 버블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네스트의 업무이며, 분산 투자를 통해 이를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글로벌 기관들에서 주식 시장이 특히 소수 종목의 지배력으로 인해 급격한 조정에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다고 경고하는 가운데 나왔다. 10 월 말 기준, 매그니피센트 7 은 MSCI 월드 지수의 약 4 분의 1 을 차지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주 투자자들이 상승장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FOMO 에 이끌리며 엔비디아,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미국 기술주의 밸류에이션이 과도한 수준(stretched)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영란은행(BOE)과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유사한 경고를 내놓으며, 낙관론이 사라질 경우 높은 AI 관련주 밸류에이션으로 인해 포트폴리오가 특히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연기금 매니저들은 지속적인 강력한 성과와 추가적인 대규모 수익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비중 축소를 꺼리고 있다.

650 억 파운드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펀드인 보더 투 코스트는 일부 AI 종목 비중을 줄였으나, 전체적인 미국 주식 익스포저는 소폭 확대했다.

윌 발라드 주식 부문 대표도 우리는 AI 의 경쟁 구도가 변화하고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아비바 인베스터스의 글로벌 주식 포트폴리오 매니저 리차드 살다나는 최근 빅테크 포지션을 보유하는 것이 편안하다고 밝히며, 2005 년에는 20%에 불과했던 미국 기술 기업의 배당 지급 비율이 현재 거의 60%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380 억 파운드 규모의 피플스 펜션 펀드를 운영하는 피플스 파트너십의 최고투자책임자(CIO) 댄 미쿨스키스는 높은 밸류에이션과 강력한 이익 성장세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까다로운 투자 결정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논쟁의 핵심은 이러한 강력한 힘들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있다며 현재로서는 자산 배분을 변경할 즉각적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 UK pension funds dump US equities on fears of AI bubble 〉
https://www.ft.com/content/9d90d557-48e5-4f4b-a927-88071cef8ea9

호주 연기금, 주요 인사를 통해 글로벌 투자 리더십 강화 – 2025.12.03, Australian Super

호주 최대 연기금인 오스트레일리안슈퍼는 런던 사무소의 주요 고위직 인사를 발표하며, 글로벌 투자 역량을 강화하고 360 만 명 이상의 가입자들에게 장기적인 가치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밥 데비-테와리가 오스트레일리안슈퍼의 신임 해외주식 포트폴리오 총괄로 선임되었다. 밥은 쉘 자산운용에서 합류했으며, 그곳에서 최근까지 부(Deputy) CIO 이자 주식 및 위탁운용 펀드 부문장을 역임했다. 그는 SAMCo 에서 다양한 리더십 직책을 맡아 지역과 전략에 걸쳐 다각화된 견고한 글로벌 주식 플랫폼의 개발 및 전반적인 운용을 주도했다.

새로운 역할에서 밥은 오스트레일리안슈퍼의 해외주식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성과를 책임지게 된다. 그의 영입은 업계 선도적인 액티브 운용 전문성을 도입하여 내부 해외주식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려는 오스트레일리안슈퍼의 일련의 채용 중 가장 최근 사례이다. 해외주식은 해당 펀드의 가장 큰 자산 배분 비중을 차지하며, 상장 주식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 680 억 파운드가 투자되어 있다.

또한, 펀드는 소피 뒤프레-에체베리아를 해외 그룹 리스크 및 컴플라이언스 총괄로 임명했습니다. 소피는 글로벌 금융 서비스 기업에서 20 년 이상 리스크 및 컴플라이언스 리더십 경험을 쌓았으며, 최근에는 걸프 인터내셔널 은행(UK) Ltd 에서 최고 리스크 및 컴플라이언스 책임자(CRCO)를 역임했다. 조직 및 투자 리스크, 영국 규제 준수, 글로벌 기업의 거버넌스 전반에 걸친 그녀의 깊이 있는 리스크 감독 전문성은 펀드가 글로벌 확장을 지속함에 따라 오스트레일리안슈퍼의 해외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 인사는 지난 1 년 동안 펀드가 단행한 다음과 같은 일련의 고위직 채용의 연장선상에 있다. 데이비드 페이지가 거시경제 리서치 총괄로 임명되었다. 데이비드는 AXA 인베스트먼트 매니저스에서 매크로 리서치 헤드로 근무하며 글로벌 전망 및 시장 분석을 이끌었던 깊이 있는 거시경제적 통찰력을 제공한다.

사모 신용 부문에서는 알렉상드르 브레츠가 오스트레일리안슈퍼의 글로벌 신용 시장 내 입지 확대의 일환으로 유럽 사모 신용 담당 시니어 투자 이사로 선임되었다. 알렉상드르는 20 년 간의 실물 자산 부채 관련 경험을 활용하여 우량 투자 기회를 발굴하고 관리함으로써 펀드의 지속적인 유럽 사모 신용 확장을 지원하고 있다.

엠마 할리는 펀드의 포트폴리오 구축 총괄로 임명되었다. 엠마는 아비바 인베스터스에서 합류하여 멀티 에셋 전략 전반의 투자 프로세스 개발을 이끌었다. 그녀의 전문성은 펀드의 글로벌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 오스트레일리안슈퍼의 자산 배분 및 위험 조정 수익률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안슈퍼의 CIO 이자 해외 사무소 부총괄인 데미안 몰로니는 "이번 인사는 오스트레일리안슈퍼의 해외 성장 전략에 있어 중요한 단계"라며, "유럽과 북미 전역에서 투자 역량을 확장함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AustralianSuper strengthens global investment leadership with key appointments 〉
https://www.ipe.com/analysis/swiss-pension-funds-weigh-fx-hedging-as-risk-appetite-rises/10133849.article

Part II

Fed/Issue Watcher

미국 연방준비제도, 국제 금융기관 연구 및 최신 이슈

연방준비제도를 포함한 국제 금융기관(FRB, ECB, BOE, BOJ, IMF, WB, BIS, CEPR, NBER 등)에 게재된 최근 연구물 혹은 글로벌 언론기관의 최신 기사 중 흥미로운 주제를 하나 선정하여 깊이 있게 소개하고, 몇몇 주제들을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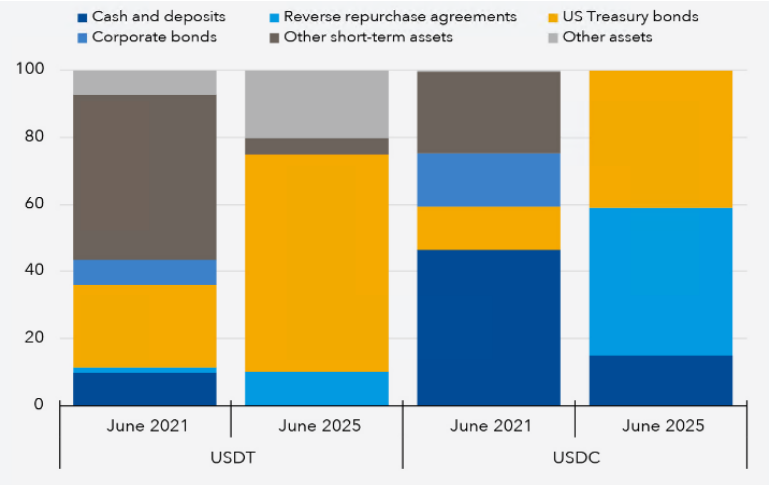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글로벌 금융 시스템 개선

** IMFBlog의 게시 내용을 요약, 편집했습니다. 저작권은 IMFBlog에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주류 금융시장과의 높은 상호연계성을 바탕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왔다. 블록체인 기반 단일 원장을 통해 기존 환거래 은행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국경 간 결제 비용 절감과 금융 포용성 확대를 견인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자산 신뢰 하락 시 대량 인출 위험과 함께, 신흥국 내 통화 대체 및 자본 흐름 관리 조치 무력화 등 거시경제적 리스크를 수반한다. 국가별 규제에 따른 차익 거래와 데이터 사각지대에서는 금융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어 글로벌 규제 공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향후 글로벌 금융 시장의 토큰화 흐름 속 시중 은행의 시장 진입이 예상되며, 기존 인프라 개선과 신기술 도입 간의 균형 잡힌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10%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코인은 구조적 특성과 주류 금융시장과의 높은 상호연계성으로 인해 영향력이 급증하고 있다.
- 지난 2년간 스테이블코인의 사용량과 가치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 스테이블코인은 국제 결제의 효율성을 높일 잠재력이 크지만, 동시에 통화 대체 및 국가의 자본 흐름 통제력 상실이라는 리스크를 수반한다.
- 이에 스테이블코인을 긍정적인 금융 혁신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책 당국의 국내외적 공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 스테이블코인은 중앙집중식으로 운용되며, 현금이나 미 국채와 같은 높은 유동성의 자산을 담보로 하여 네이티브 가상자산(예: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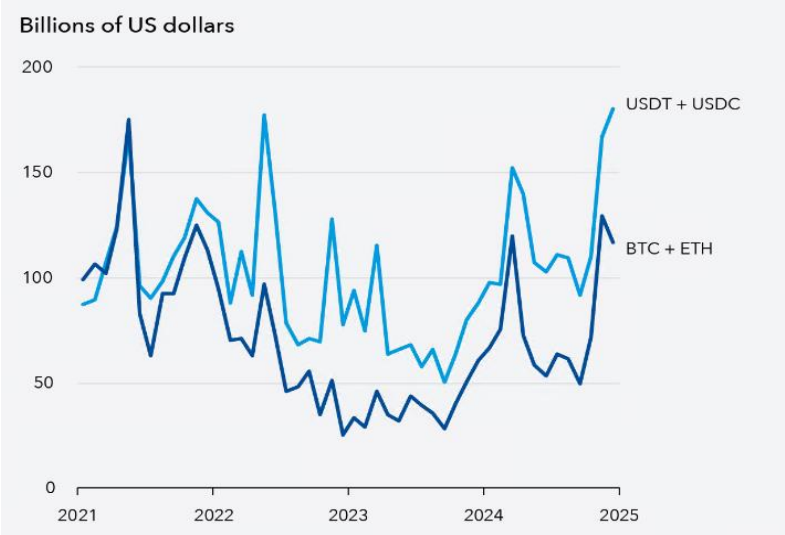
그림1 Stablecoins are mostly backed by US Treasuries



자료: IMFBlog, LS증권 리서치센터

- 2023년 이후 양대 스테이블코인(USDT, USDC)의 시가총액은 3배 증가하여 합계 2,600억 달러, 거래량은 90% 급증하여 2024년 23조 달러를 기록했다.
- 절대적인 거래 규모는 아시아가 북미를 상회하나, GDP 대비 활용도는 아프리카, 중동, 남미 등 신흥국이 두드러진다.
- 자금의 흐름은 주로 북미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양상이다.
- 현재는 주로 가상자산 매매 결제용으로 활용되나, 국경 간 자금 이동 목적의 활용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림2 Stablecoins' cross-border flows are growing faster than crypto assets



자료: IMFBlog, LS증권 리서치센터

- 기존 환거래 은행(Correspondent Banking) 시스템은 다중 처리 단계와 상이한 운영 시간으로 인해 고비용·저효율의 구조를 가진다.
- 스테이블코인의 블록체인 기반 단일 원장은 이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여 송금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 이에 은행 인프라가 취약한 개발도상국에서 모바일 기기를 통해 기존 금융 단계를 건너뛰는(Leapfrogging)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기존 사업자와의 경쟁은 서비스 비용 인하와 상품 다양화를 촉진할 전망이다.
- 다만 글로벌 리스크 요인도 존재한다. 기초자산의 가치 하락이나 신뢰 상실 시 대량 인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준비자산의 투매는 금융 시장 전반을 교란할 위험이 존재한다.
- 또한 인플레이션이 높은 신흥국에서 자국 통화 대신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선

호하는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으며, 이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최종 대부자 기능을 약화시킨다.

- 더욱이 기존 금융 중개기관을 우회함으로써 국가별 자본 흐름 관리 조치를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대외 변동성에 취약한 신흥국에 리스크로 작용한다.
- 가명성(pseudonymous)과 국경 간 이동 용이성을 악용한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위험도 존재한다.
- 이렇듯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은 국제 통화 시스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네트워크 간 상호운용성이 부족할 경우 결제 효율화라는 본연의 잠재력이 저해될 수 있다.
- 규제에 관해서는 IMF와 금융안정위원회(FSB)는 통화 대체 방지, 자본 통제 유지, 강력한 규제 적용 등을 권고하고 있다.
- 국제 표준이 수립되고 있으나, 주요국 간 규제 속도의 차이로 인해 차익 거래의 기회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
- 일부 국가는 런 리스크(Digital Bank Run) 완화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도 고려 중이다.
- 스테이블코인의 보유자 위치 및 국적에 대한 가시성 부족은 대외 부문, 통화 및 금융 통계의 정확성을 떨어뜨리고 위기 대응을 어렵게 한다.
- 이 모든 것은 거시건전성 및 파급 효과에 관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강력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토큰화와 스테이블코인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나, 향후 채택 여부와 기술의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 소수 사업자의 독과점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중 은행들도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을 통해 시장 진입을 모색하고 있다.
- 결국 국경 간 결제의 혁신은 기존 인프라의 개선과 신기술 도입 간의 균형을 통해 달성될 것이다.

〈 How Stablecoins Can Improve Payments and Global Finance 〉
By Tobias Adrian, Marcello Miccoli, Nobuyasu Sugimoto. 2025.12.04
https://www.imf.org/en/blogs/articles/2025/12/04/how-stablecoins-can-improve-payments-and-global-finance

휴머노이드 로봇 레이스의 주도권을 쥔 중국

** Financial Times 게시 내용을 요약, 편집했습니다. 저작권은 Financial Times에 있습니다.*

IREX 2025를 통해 차세대 성장 동력인 휴머노이드 분야의 패권과 밸류체인은 이미 중국이 장악했음을 보여주었다. AI의 발전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는 가운데, 글로벌 IB들은 2026년 시장 변곡점 도래와 2050년 5조 달러 규모의 시장 형성을 전망하고 있다. 유니트리 등 중국 기업들의 기술 선점과 테슬라 옵티머스의 높은 중국 부품 의존도가 중국의 제조 지배력 확대를 시사한다. 한편 노동력 부족을 겪는 일본이 대규모 도입의 시험대가 되겠으나, 급격한 노동 대체에 따른 '로봇 공포증'과 정치적 갈등이 향후 주요 리스크로 부상할 전망이다.

- 반세기 넘게 국제로봇전시회(IREX)는 실용주의적 관점과 미래 예측이 절묘하게 조화된 결과물들을 선보여 왔으나, 로봇 도입과 관련한 정치적인 논의는 빠져있는 모습이다.
- 1974년 시작된 이래, 로봇 산업에 줄곧 집중해 온 일본에서 격년으로 열리는 이 전시회는 산업 자동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자리이다.
- 국제로봇연맹(IFR)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적으로 50만 대 이상의 로봇이 신규 설치되었다.
- 이 중 54%가 중국에 집중되었는데, 이는 지난 10년간 세계 최대 산업용 로봇 생산국 지위를 지켜온 중국의 위상을 고려하면 필연적인 결과이다.
- 하지만 IREX의 흥행과 분위기를 주도해온 것은 언제나 휴머노이드였다.
- 인간을 닮은 로봇이 인간의 과업을 수행하는 모습에는 먼 미래에 로봇이 더 많은 일을 더 완벽하게 해낼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이 담겨 있다.
- 일본은 이러한 휴머노이드에 대해 낙관적인 신뢰를 보내며 세계를 선도해 왔다.
- 반면, 우리 사회는 이러한 로봇의 '사회 진출'에 대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정치권 역시 머지않아 직면하게 될 사회적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않은 상태이다.
- 이러한 상황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도쿄에서 개막한 'IREX 2025'가 이전 행사들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다가오는 데에는 두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다.
- 첫째는 2023년 이후 가속화된 기술적 진보와 이를 바탕으로 쏟아지는 장밋빛 전망 때문이다.

- 급격히 발전한 AI는 휴머노이드 서비스 로봇이 실무에 투입되기까지 겪었던 기술적 공백을 메울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 이제 시장의 관심은 하드웨어적 한계보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AI의 역량을 로봇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구현하느냐에 쏠리고 있다.
- 투자자들에게 차기 메가트렌드를 제시하는 애널리스트들도 휴머노이드 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 맥쿼리의 데이지 장 애널리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2026년이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의 '변곡점(Inflection year)'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 그녀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연간 판매량이 내년 5만 대에서 2031년 110만 대 규모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 특히 2034년에는 공장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수를 뜻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침투율'이 기존 산업용 로봇을 추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 모건스탠리 역시 'Embodied AI'로의 전환이 역사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 2050년까지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이 5조 달러 규모로 성장하고, 인간 10명당 1대의 로봇이 보급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 다만, 로봇 산업은 과거에도 장밋빛 전망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컸던 만큼 투자자들에게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 IREX 2025에서 눈에 띄는 두 번째 특징은, 일본이 여전히 산업용 로봇의 주요 플레이어임에도 불구하고 휴머노이드 분야의 주도권은 이미 중국으로 넘어갔다는 점이다.
- 유니트리 H2, 에이지봇 G2, 유비테크 워커 S2 등 현재 주목받는 안드로이드 로봇 대다수는 중국산이다.
- 심지어 테슬라가 선보일 '옵티머스 3세대'조차 핵심 부품의 상당수가 중국산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 AI와 결합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의 기술적 전환이 현실화될 경우, 노동 시장과 경제적 균형, 문화적 규범은 유례없는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 한 중국 로봇 제조사의 슬로건인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은 달콤하게 들리지만, 이것이 '대량 실업'의 또 다른 이름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흥미로운 가능성은 중국이 거대한 로봇 제조국으로 부상했다면, 일본은 높은 자본력과 로봇에 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바탕으로 대규모 휴머노이드 도입을 실험하는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 이론적으로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는 일본은 인간을 기계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저항감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 외국인 노동자나 비자 문제보다는 로봇을 선호하는 사회적 기류가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로봇 도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때, 정치권은 이 '새로운 이주자'들을 수용할 논리를 찾아야 한다.
- 특히 로봇이 외국에서 제조되었다면, 로봇 도입 논의는 이민 정책 담론과 유사하게 흘러갈 위험이 있다.
- 이 과정에서 '로봇 공포증(Robophobia)'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는 강력한 정치적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China takes the baton in the humanoid robot race 〉
By Leo Lewis, 2025.12.04
https://www.ft.com/content/39c06adf-1895-426e-8648-727844fc91a4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최광혁).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Vol 315. 2025. 12. 01 (월) ~ 2025. 12. 08 (월)

이 자료는 미국 12개 연방준비은행, 국제 금융기관(IMF, BIS, BOJ, ECB, CEPR 등) 및 기타 연구센터에서 최근 게재한 연구물과 글로벌 집행기관들(연기금, 국부펀드, 대학기금 등)의 최신 동향을 정리 및 번역한 것입니다. 주요 국제 금융기관에서 두드러진 주제가 없는 주에는 해외 언론사, 운용사의 칼럼, 오피니언, 특집기사 등에서 발간기간에 제한 없이 눈에 띄는 주제를 요약, 인용, 편집을 거쳐 데이터를 덧붙여 정리했습니다.